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dark brown, textured surface, possibly a canvas or paper, with visible brushstrokes. Scattered across this background are several bright yellow and green shapes, which are stylized representations of flowers and leaves. The yellow shapes are large and have a soft, painterly quality, while the green shapes are more elongated and pointed. The overall composition is abstract and artistic.

알렉스 카츠 Flowers

서울 포트힐

9 December 2021—5 February 2022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알렉스 카츠

《꽃》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2층

2021년 12월 9일—2022년 2월 5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개관 이후 두 번째 전시로 미국 작가 알렉스 카츠의 개인전 《꽃》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9일부터 2022년 2월 5일까지 선보이는 본 전시는 카츠의 작업 중에서도 꽃을 주제로 한 회화들을 특별히 조명한다. 지난 20년간 작가가 작업해 온 꽃 시리즈 중 이전에 소개된 적 없던 작품들과 더불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초상화까지 아우르며, 한 장르의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전시라는 데 의의가 있다. 카츠는 이번 전시를 앞두고 ‘한국은 꽃을 주제로 한 회화에 관한 훌륭한 전통을 가졌다.’라고 언급하였다. 롯데뮤지엄(2018)과 대구미술관(2019)에서 개최되었던 개인전을 잇는 《꽃》은 2022년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에서 예정된 알렉스 카츠의 대규모 회고전에 앞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카츠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의 뉴욕 미술계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으로 대표되는 추상표현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파고 속에서 카츠는 미국의 현대적인 삶을 담백한 필치로 담아내며 자신만의 고유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카츠는 영화와 빌보드 광고, 음악, 시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서 영감을 얻었으며, 당시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며 강렬한 색조와 편편한 화면이 돋보이는 작가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카츠의 회화는 여러모로 앤디 워홀(Andy Warhol)과 같은 팝 아티스트와의 형식적, 개념적 관련성을 떠오르게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작품은 회화적이고 현실을 관찰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명한 미술사학자 이진명은 작가의 이러한 능력이 서구에서 지속된 추상과 구상 간의 논쟁을 초월하며 그를 ‘미술사에 등장하는 거장 중에 현재까지 생존해있는 유일한 화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출간된 도록에 글을 기고한 이진명은 2019년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꽃 회화의 기원

카츠는 1950년대 미국 메인(Maine) 주에 위치한 여름 별장에서 화병에 꽂힌 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가는 ‘비가 오기에 꽃을 잘라 화병에 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와 동일한 과정이긴 했지만, 그때는 꽃병보다 꽃에 더 관심이 갔다.’고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꽃 회화는 1960년대에 걸쳐 구현했던 단체 초상화와 관련이 있다. 꽃 또한 인물과 마찬가지로 형상들이 겹쳐져 있는데, 당시 그가 그렸던 칵테일 파티 장면에서는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운동감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가의 초기작 〈금잔화(Marigolds)〉(2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풀밭에 흩어져 있는-약간씩 다르게 표현된-각각의 꽃들은 자연의 움직임에 대한 순간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새로운 꽃 회화

카츠가 새롭게 선보이는 꽃 시리즈는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에 그려진 것이다. 다시 이 주제로 회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작가는 미소 지으며 ‘나는 (이 시리즈를 통해) 팬데믹에 지친 세상을 어느 정도 격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일련의 작품들은 작가의 고유한 붓놀림과 화면 구성력, 그리고 단순화된 색면이 돋보이는 <야생화 1(Wildflowers 1)>(2010)나 <아이리스(Iris)>(2011) 같은 이전의 작품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란(Peony)>(2020)이나 <주황색 바탕 위의 진달래(Rhododendron on Orange)>(2020)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꽃의 음영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조각적인 존재감을 부여한 작가는 ‘형상과 부피 자체의 묘사’에 치중한다. 그러나 여전히 먼저 칠한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다음 획을 더하는 ‘웻 온 웻(wet-on-wet)’ 기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작업한다. 작가의 전매특허인 이 기법은 작품에 즉각성이라는 요소를 더하고, 미술사학자 이진명의 표현처럼 ‘물감의 높이가 완벽하게 균등한 마술’을 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함께 선보이는 꽃을 그리기 위한 카츠의 연구작들은 그가 작업하는 방식의 첫 단계를 보여준다. 작가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가들의 방식대로 꽃에 밝은 색상을 부여하는 빛과 대기(atmosphere)를 자연에서 직접 포착하고, 이후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큰 캔버스에 그가 포착한 장면들을 옮긴다. 이에 대해 그는 ‘꽃은 실제로 그리기 가장 어려운 형태를 지녔다. 왜냐하면 꽃의 물질성과 표면, 색상, 그리고 공간적 측면을 모두 잡아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꽃의 색감은 유화 물감으로 온전히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물감을 섞는 과정에서 선명했던 안료가 기름에 의해 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색상의 명도를 높이기 위해 보색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색의 균형을 맞춘다. ‘회화를 마주한 사람들이 마치 실제 꽃을 보는 듯한 그 찬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새로운 초상화

카츠의 신작 초상화 <밀짚모자 3(Straw Hat 3)>(2021)은 인물이 녹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꽃 회화들과 함께 전시되며 마치 메인 주에 있는 그의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이중 초상화로 구성된 이 작품은 링크 또는 열은 미소를 띤 인물이 미묘하게 연결되며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자아낸다. 또한 카츠의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꽃 회화 역시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화면 구성 방식을 통하여 클로즈업을 한 듯한 영화적 효과를 일으킨다. 이는 그가 표현하는 대상이 지닌 섬세한 본성 기저에 존재하는 강한 에너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작품 화면에 즉각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실물보다 크게 그려진 꽃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현재’에 관람객을 몰입시킨다. 바로 거기에 카츠의 회화가 지닌 힘이 존재한다. 추상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의 작품은 삶 속에 표류하는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작품의 서사보다는 순수한 시각에 기인하여 시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알렉스 카츠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 센터,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런던 테이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 뉴욕 현대미술관(MoMA), 아트선재센터, 일본 히로시마 시립 현대미술관, 이와키 시립미술관, 도쿄 현대미술관 등 전세계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꽃》은 타데우스 로팍 파리에서 2014년과 2021년에 각각 개최된 초상화 시리즈와 물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전시를 잇는 것으로, 카츠의 예술 인생을 기념하는 회고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밀짚모자 3〉 작업 중인 알렉스 카츠, 2021. Photo: © Juan Eduardo

작가 소개

1927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알렉스 카츠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그는 뉴욕의 쿠퍼 유니온 미술학교(Cooper Union School of Art, New York)와 메인 주의 스코히건 회화 조각 학교(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Maine)에서 수학하였으며, 1954년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화, 드로잉, 조각, 판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카츠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빌보드 작업(Times Square billboard, 1977)이나 할렘역(Harlem Station, New York)에 알루미늄 벽화(1984)를 제작하는 등과 같은 여러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뉴욕 지하철역에 19점의 대형 작품을 설치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1974, 1986, 2002)과 런던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London, 1990), 발티모어 미술관(Baltimore Museum of Art, 1996), 아일랜드 현대미술관(Irish Museum of Modern Art, Dublin, 2007), 핀란드 사라 힐덴 미술관(Sara Hildén Art Museum, Tampere, 2009), 영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2010), 비엔나 알베르티나 미술관(Albertina, Vienna, 2014),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2015),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ies, London, 2016), 영국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2018),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Musée de l'Orangerie, Paris, 2019),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Museo Nacional Thyssen-Bornemisza, Madrid, 2020), 상하이 포선 재단(Fosun Foundation, Shanghai, 2020) 등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200회 이상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에서 그의 전 작품을 망라하는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유드린 dropbo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타데우스 로팍 서울 seoul@ropac.net

김해나 hannah.kim@ropac.net

M +82 10 7226 2614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